

## 요산 김정한 소설에 나타나는 불교 사상과 불교적 세계관 고찰

오 현 석\*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요산 김정한의 소설에 구현된 불교 사상과 불교적 세계관 |
| 2. 요산 김정한의 종교와 불교에 대한 인식 | 4. 나오며                            |

### 국문초록

요산의 작품에 드러나는 저항 의식과 민중의식은 기본적으로 작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김정한 소설 연구는 민중 지향성과 저항성 등에 초점을 맞춰서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대다수였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요산의 소설이 꼭 유교적 시각이 아닌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작품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근거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김정한은 어린 시절 서당을 그만 둔 후 범어사에서 설립한 명정 학교에서 2년간 공부했다. 이 기간에 김정한은 불교에 대한 긍정적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

의식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그는 당시 친일 세력에 의한 타락한 불교를 비판하며 불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즉, 김정한이 불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벗어난 불교인들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는 김정한의 소설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김정한이 남긴 여러 글과 말을 통해서 그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민중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의미를 가지는 부처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그의 후기작품 중에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 등 소설은 불교적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모두 불교적 세계관과 관련 있는 제목이고 등장인물들의 의식 역시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불교적 세계관의 근본은 윤회에 따른 인과응보이다. 자신이 세운 업보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선업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의 주된 내용이다.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존중과 인간성 회복이다. 민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교 사상을 소설 속에 숨겨놓고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민중을 위해서 불교사상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수라도」에서 가야부인과 「축생도」의 수의사는 모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또 「지옥변」은 존재의 높고 낮음은 없다는 무유고하(無有高下)를 실현해야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사뱃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공(空)을 깨닫고 행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한의 소설에서 불교적 세계관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닌 불교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요산, 김정한, 불교, 소설,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

## 1. 들어가며

문학 창작과 향유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요산 김정한에게 문학 창작의 목적과 원동력은 단순히 유희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학은 목적성을 가져야 하며, 작가 자신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대상은 바로 힘없고 착취당하는 민중이다. 민중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힘도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산은 이런 소외당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작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산 소설은 저항문학, 민중문학, 농민문학,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게 되었다.<sup>1)</sup> 또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과 문학을 “반골 인생”<sup>2)</sup>이라고 정리하며 평생 민중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살아온 자부심을 드러냈다.

“무엇을 위해서 문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작품을 읽으면 알 것이 아니냐” 싶어 그저 미고소(微苦笑)를 지어 보일 뿐이다. ‘인간을 위해서’란 말을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이라고 쓰다 보니, 권력과 금력에 의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당한다든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든가, 부당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민중의 편이 되었을 따름이다. (……) 문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 양심의 편,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작가의 책임이고 의무인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또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믿는다.<sup>3)</sup>

1) 요산 문학의 경향성은 특히 인물의 특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요산 소설은 민중이 등장인물이면서 권력자나 자본가와 대립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3;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11-32쪽; 최미진, 『근대소설과 지역』, 『한국근대소설의 이면』, 소명출판, 2010, 309-339쪽.

2)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299쪽.

힘없는 “인간을 위”한 문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저항의 문학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요산 김정환은 작품을 통해서 낙동강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민중들의 삶을 끊임없이 보듬어왔기 때문에 ‘낙동강 파숫군’으로 알려진 작가이다. 그의 첫 에세이집인 『낙동강의 파숫군』<sup>4)</sup>을 들여다보면 그가 문학을 하는 이유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 준 별칭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억압과 혼란 속에서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온 힘없는 이 나라 농민과 서민들의 애환의 기록인 동시에 증언”<sup>5)</sup>함으로써 낙동강의 민중들을 지켜냈다.

요산의 작품에 드러나는 저항 의식과 민중의식은 기본적으로 작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 김정환의 집안은 대대로 사림파의 전통을 지켜온 집안이었다. 요산의 16대조 김일손이 무오사화로 피해를 입으면서 청도로 내려온 후 10대조 김석희가 동래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후 김정환의 집안은 동래에서 사화로 무너진 가세를 다시 일으켜 나갔다. 이 집안은 김일손의 대쪽 같은 태도로 쓴 사초(史草)로 인해서 훈구파의 견제로 사화를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온 후에도 사림 양반으로서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산 역시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우고 6살 때부터는 서당에 나가서 종조부에게 한학을 공부했다. 서당에서의 수업은 종부부의 자식사랑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 김정환은 서당에서 『동몽선습』, 『통감』 등을 익혔다.<sup>6)</sup> 이처럼 어린 시절 서당에서 받은 교육과 집안의 가풍(家風)은 요산의 의식 속에 선비정신, 곧 유교적 사고와 가치관을 내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평생 민중을 향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작가의 삶은 요산의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인간단지』의 우중신 노인,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산거족』의 황거칠 등

3) 김정환,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51쪽.

4) 김정환,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5) 김정환, 위의 책, 1978, 4쪽.

6) 김정환, 위의 책, 1978, 78쪽.

의 등장인물들은 패배와 실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

지금까지 대부분 김정한 작품 연구자들은 이러한 민중지향성을 김정한의 강직한 성격과 민중에 대한 애정에 근거한다고 분석하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선비정신을 들고 있다. 즉, 유교적 관념이 작가의 성장과정과 이후 삶에 영향을 미쳐서 작품세계에 가지 그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등장인물들 역시 기존 연구들은 실제의 삶은 유교나 선비와는 거리가 멀지만 한국인에 의식 속에 내재한 지조와 절개, 저항의식이 인물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sup>7)</sup>

그런데 본 연구자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요산 소설에 등장인물들이 이와 같이 무모하고 가능성 없는 대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물들의 특질을 앞서 언급한 요산의 집안 내력과 어릴 적 서당에서 공부한 유학이 바탕이 된 선비의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요산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을 옹고 끈게 세워서 남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만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단계를 뛰어 넘어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다. 자신을 포함해서 억압받는 모든 민중을 위한 노력은 『축생도』의 수의사, 『수라도』의 가야부인, 『지옥변』의 차돌이, 『사뱃재』의 송노인 등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와 같은 인물들의 성격을 요산의 민중 지향성과 저항성 등에 초점을 맞춰서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대다수였다.<sup>8)</sup> 그래서 요산 김정한이라는 작가의 표상이 확고하게 굳어진 현재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작가의 삶의 내력과 작가가 남긴 여러 글과 말을 통해서 작가의 내면 의식을 분석하고 작품 이면에 담긴 작가의 목소리를 읽어낸다

7) 김택호, 『김정한 소설의 저항의식과 유교적 세계관』,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250-251쪽.

8) 김택호, 위의 글, 251쪽.

면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작품은 작가의 체험과 의식이 사회 상황, 독자와 결합되어 만들어진 생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작품 해석에 작가의 삶과 가치관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다루어져 온 김정한의 작품해석의 틀을 뛰어 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한의 작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년시절 집안과 서당에서 공부한 한학을 통해서 작가의 의식 일부에 유교적 관점이 내재함을 파악했다. 여기에 더하여 작가의 작품을 살펴볼 때 또 하나 의식화된 지점이 불교이다. 김정한은 서당을 그만 둔 후 2년 동안 범어사에서 설립한 사립 명정학교에서 수학을 했다. 이 기간은 김정한은 신식교육과 함께 불교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정한을 세상에 알린 『사하춘』을 비롯하여 『옥심이』, 『항진기』, 『추산당과 결사람들』, 『수라도』, 『축생도』, 『제3병동』, 『지옥변』, 『사뱃재』 등 여러 작품에서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드러난다. 특히 작품 표면에 불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추산당과 결사람들』, 『수라도』 두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한의 작품에 나타나는 불교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sup>9)</sup> 하지만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김정한 소설에 드러나는 불교의식이 “신라 이래 평민들이 갖고 있는 전통 종교인 불교 이해수준”<sup>10)</sup>이거나 “불행한 여성들을 위한 위안의 기능, 치유적 기능”<sup>11)</sup>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김정한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진 불교의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기복신앙(祈福信仰)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김정한이 발표한 『사하춘』, 『추산당과 결

9) 김윤식, 『추산당과 가야부인- 김정한론』,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5-46쪽;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제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261-289쪽; 김주현, 『요산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47-74쪽.

10) 김윤식, 위의 글, 37쪽.

11) 송명희, 위의 글, 283쪽.

사람들」, 「옥심이」, 「항진기」 등의 작품에서 불교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자들은 이런 작품의 경향을 들어 김정한이 가진 불교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라고 보고 소설 속 등장인물이 가진 불교인식 역시 민중적 차원의 불교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하지만 김정한의 삶과 민중에 천착한 작품 경향을 생각해보면 작가가 가진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작가가 1960년대 후반부터 발표한 「축생도」(1968), 「제3병동」(1968), 「수라도」(1969), 「지옥변」(1969), 「사뱃재」(1971) 등의 작품들을 보면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명과 함께 그 내용도 앞서 설명한 유교의식만으로 설명 불가능한 불교적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김정한의 작품에 드러나는 불교의식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경향은 탈피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김정한의 소설을 적극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2장에서는 요산 김정한이 남긴 글과 작품을 통해서 종교관, 특히 불교에 대한 인식과 민중문학, 리얼리즘 문학의 접합점을 찾겠다. 특히 김정한이 불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연구자들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교로서의 불교와 현실의 불교를 분리하여 볼 때 김정한의 소설이 지닌 불교의식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김정한의 후기 소설 중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를 중심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소설 창작의 이유와 목적, 작품 속에 드러나는 불교적 사상관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또한 작품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해야만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면에 내재한 등장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해독하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한이 작품 창작에 불교를 종교 또는 사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김정한이라는 작

가의 삶과 글을 통해서 그에게 내면화된 종교의식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 본 연구가 리얼리즘 문학의 대가인 요산 김정한에게 종교가 리얼리즘에 균열을 가하는 요소가 아닌 민중적 리얼리즘을 심화시켜주는 장치로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김정한 소설의 의미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 2. 요산 김정한의 종교와 불교에 대한 인식

한 인간의 의식, 가치관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경험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타인은 그의 행동, 말, 태도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추청하고 읽어낸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런데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작품에 직접 투영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품 속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나 사상, 가치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과 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산은 작품 창작이 작가 자신이 수난을 당하더라도 “인간의 편, 양심의 편, 정의의 편”<sup>12)</sup>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중의 편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요산은 끊임없이 현실을 비판하고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이처럼 요산의 작가의식과 연관해서 요산의 초기 소설에 형상화된 불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정한의 소설 『사하촌』, 『옥심이』, 『항진기』 등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왜 있는지, 작가는 이를 통해서 이면에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인지, 또 『수라도』에서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가의 의식과 가치관을 읽어내어야 한다.

12) 김정한, 앞의 책, 1985, 251쪽.

요산과 불교의 인연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서당 공부를 그만 두고 범어사에서 설립한 명정학교<sup>13)</sup>에 들어가서 2년간 수학했다. 명정학교는 당시 불교계에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근대학교를 설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교했다. 김정환은 이 학교에서 이전에 배웠던 한학이 아닌 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명정학교는 불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교육과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불교교육도 함께 병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김정환이 명정학교 시절 학교생활을 회상한 내용이다. 신교육에 대한 긍정과 함께 불교의 현실에 대한 부정이 동시에 드러난다.

내 고향에는 아직 정규의 소학교(보통학교)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서당을 그만둔 나는 가까운 절간에 있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다. 시설이나 교사진이 정규의 학교보다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당보다는 나았다. (……) 절에서 세운 학교라 육순이 넘은 주지인 교장은 신학문을 알 턱이 없고, 그저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불경 귀절이나 꺼내다가 개 벼룩 씹듯 이를 꺾꺾 씹기가 일쑤였다. (……) 그래도 교실에 들어가면 젊은 스님선생들이 사칙(四則)도 가르치고 창가도 가르쳤다. (……) 나는 이 절 학교에 이태 동안 다니면서 소위 신학문이란 걸 배운 이외에 그 당시의 불교라기보다 절이나 중들에 대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았다. 소위 강원이란 데서 불경 공부를 하는 아주 젊은 중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늙은 스님들은 수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뜰에 난 풀이나 뽑고 밥 때가 되면 밥이나 받아먹는 것 같이 보였다.<sup>14)</sup>

어린 요산의 관점에서 신지식을 배우는 학교는 이전 서당에서 끊임없

13) 1906년(고종 43)에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불교계에서는 민족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밝히고자 뜻있는 승려와 지식인들이 모여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교육적·계몽적 기능까지 수행하고자 사립 명정학교를 개설하였다. 1919년 3월 31일에 재학생의 3·1 운동 참가와 동래 장날 만세 사건에 의해 강제 폐교 조치되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14) 김정환, 앞의 책, 1978, 79-80쪽.

이 외우기를 강요받던 수업과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을 것이다. 또 교장인 주지스님이 아침 조회에서 읊는 불경 구절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따분한 이야기지만 작가의 이 진술을 통해서 볼 때 명정학교가 단순히 신식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범어사에서 설립한 불교학교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한 교육도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김정한은 명정학교를 다닌 2년 동안 “당시의 불교라기보다는 절이나 중들에 대한 일들”을 보고 불교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즉, 학교에서 배운 신학문, 불교사상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세속화된 불교와 스님은 어린 요산에게 괴리감을 주었다.

특히 범어사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일본불교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신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불교의 친일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불교가 그만큼 세속화된다는 의미와 같다. 일본 불교는 대처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불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대처승으로 인한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수양, 참선(參禪)을 중시하던 조선 불교의 전통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승들의 증가로 전통의 파괴되었다. 김정한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승려와 타락한 불교는 이러한 대처승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명정학교 시절, 어린 시절 동래 범어사에서 경험한 작가의 불교 인식은 김정한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사찰이나 승려들이 부정적으로 다루어진 원인이 되었다. 요산의 초기소설 중 「사하촌」, 「옥심이」, 「항진기」, 「추산당과 곁사람들」 등에서 불교,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절과 중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대 그런 행태를 작가 자신이 실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한이 소설을 통해서 불교 그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불교의 의식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물들과 세대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타락한 불교 의식은 조선의 전통불교를 지키지 않았던 일본 대처승과 친일 승려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김정한은 불교의식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품 속에서 진정한 불교 의식이 무시되는 일제강점기 친일화된 불교를 비판하고 이런 의식이 지켜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한은 원래 지켜야 할 불교의 법도와 부처의 가르침을 긍정하면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승려와 속세의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품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문제가 민중의 착취와 연동되면서 김정한은 불교의 타락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처럼 김정한의 소설에 드러나는 불교에 대한 비판을 종교 그 자체로서 불교와 등가(等價)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김정한은 종교 그 자체로서의 불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천 년을 지켜온 한국 불교의 전통은 긍정하고 있다. 다만 김정한의 문제의식은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실행하는 인간에 대한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뜻을 간직한 종교 그 자체는 작가에게 긍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라문화가 불교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는 것과, 전국 4대 사찰 중 합천 가야산 밑에 자리 잡은 해인사와 양산 황취산 기슭의 통도사, 동래(지금은 부산) 금정산 계곡에 천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범어사가 바로 이 고장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이 지방이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런 곳인가를 쉬 알 수가 있을 것이다.<sup>15)</sup>

전국 4대 사찰 중 3개의 절이 영남지방에 모여 있다. 특히 범어사는 김정한이 나고 자란 동래에 위치하고 있는 천년고찰로 지역의 자랑이자 불교문화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김정한은 본인이 자라온 고장에 유서 깊은 절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김정한이 불교나 종교에 그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음을

15) 김정한, 『황량한 들판에 서서』, 황토, 1989, 272쪽.

알 수 있다.

사실 김정한은 타계 직전 가톨릭 영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을 제외하면 작가로 활동하면서 종교적 편향을 드러내거나 특정 종교의 신도가 되지 않았다. 그에게 종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민중의 삶과 결합될 때 비로소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민중이 종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하촌」, 「옥심이」 등의 작품이나 종교가 민중의 버팀목이 되어 준 「수라도」 등에서 종교의 문제가 김정한 소설 속으로 소환되었다. 특히 종교적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의 작품에서 대부분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동래에 있는 범어사와 어린 시절 다닌 명정학교의 기억은 김정한에게 불교에 대한 잠재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자극이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민중을 우선시 했다. 아래 인용 역시 민중문학과 불교의 접점을 통해서 작가의 문학관과 불교의식을 드러냈다.

요산의 소설은 언제나 그런 학대받는 사람들, 돈과 권력 앞에서 시달리고 있는 따라지 인생들의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님은 等思衆生 라홀라라고 했지. 라홀라는 부처님의 아들, 그 러니까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잘 사는 자식보다 못하는 자식, 고생하는 자식을 먼저 돌보아 주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못사는 자식으로 비유될 수 있는 중생을 버리고는 문학이설 자리가 없다고 봐. 적어도 내 문학은 말야.<sup>16)</sup>

요산은 작가로서 ‘따라지’ 인생을 돌보아야 진정한 문학으로 설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돌보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부처가 중생에 대한 관심 없이는 불국토를 이룰 수 없듯이 요산은 문학이 민중을 생각하지 않고는 문학으로서

16) 요산 김정환선생 고회기념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145쪽.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처는 모든 중생을 일체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한다. 즉, 차별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실에서 소외 받는 이들의 소외를 없애고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금강경 제2분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에 “여래(如來)이 선호념제보살(善護念諸菩薩)하시며 선부촉제보살(善付囑諸菩薩)하시나니”<sup>17)</sup>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을 향해야 함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래는 보살들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삶의 지향점으로 무주상(無住象) 보살행(菩薩行)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sup>18)</sup> 이처럼 여래의 시선은 구체해야 할 보살을 향하고 있으며, 보살은 또다시 그 아래를 향한 마음을 냄으로써 현실 사회를 개선해나간다. 요산 역시 민중을 향한 시선을 통해서 현실을 고발하고 민중의 존재의식, 저항의식을 자극함으로써 민중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요산의 불교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 송광사 주지스님은 인젠 장삼 차림에 그런 연극은 안 해도 될 테니까 『불교회복』의 기수가 되어 주었으면 싶다.<sup>19)</sup>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 세대에 대해서 김정한은 ‘연극’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김정한이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난다. 입장료를 받는 등 세속화된 불가의 세대는 본래 부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다. 김정한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실행하는 종교인데 사찰 입장료를 비롯해 재물에 관심을 두는 스님과 불자들을 보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벗어난 욕심을 가진 것을 비판했다. 입장료를 폐지한 송광사 주지스님은 타락한 현재 불교를 원래 부처님의 뜻으로

17) 고려본 금강경 제2분

18) 무비, 『무비스님 新 금강경강의』, 불광출판사, 2016, 32쪽.

19) 김정한, 앞의 책, 1985, 169쪽.

바꾸어 불교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사하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한은 세속화된 불교와 불교인에 대해서 종교적인 순수한 잣대로써 비판하고 있다. 스님의 탈, 종교의 탈을 쓰고 꼭 두각시놀음을 하는 이들 때문에 순수한 종교의 가르침이 매장된 현실을 작가는 ‘불교회복’이란 말로 극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정신 혁명! 이것은 석가 3천년 이래 여러 가지 말로써 되풀이되어 온 말이라고 생각된다. 공자의 인(仁)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도 결국은 같은 뜻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란 말도 그것의 현대적인 표현일 테고.<sup>20)</sup>

위의 인용을 통해 볼 때 김정한은 특정 종교를 거부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가, 공자, 그리스도가 모두 같은 뜻”이라고 한 이유는 각 종교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민중이다. 즉,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 목적이자 이상이다. 그래서 김정한은 모든 종교는 같은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대의 민주주의 역시 국민(민중)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상의 실현으로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고 보았다. 중세 계급 사회가 몰락하고 인간의 가치가 평등해진 사회에서 각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물리적,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이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인간’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김정한은 현대 사회 역시 민주주의의 참 뜻에 따라 운영된다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요산 김정한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불교 그 자체와 현실의 불교를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요산은 작품 속에 불교의 세

20) 김정한, 앞의 책, 1985, 199쪽.

속화 문제를 소재로 삼아 비판도 하고 석가의 가르침을 환기시켜 정화를 요구하기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가 단순히 불교 비판을 위해서 작품에 활용했거나 한민족에 내재한 기층종교로서 불교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사하춘』 창작 후 그가 경험을 회상한 일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너 왜 불교를 반대하는 소설을 썼니?” 다짜고짜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 “불교를 반대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절을 등대고 선량한 농민을 괴롭히는 망나니 중들의 행패를 쓴 일은 있습니다. 우선 그 절 주지란 사람이 남의 부인을 가로챌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시면 알게 아납니까?”<sup>21)</sup>

‘천황폐하성수만세’란 패목이 법당에 걸려 있는 한 나는 불교계의 부패상을 계속 까맣히리라. 그 뒤에 발표한 『옥심이』를 비롯한 몇 편의 작품에서도 일제의 앞잡이가 된 중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 것도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물물이 되살아나온 탓이라고 회상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들로부터 받은 테러가 오히려 내 문학을 살찌게 해 주었다 할까?<sup>22)</sup>

그 답은 ‘민중’에 있었다. 요산은 반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품에 나오는 타락한 승려들보다 더 불교적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미 친일로 돌아선 대다수의 불교계는 종교의 탈을 쓰고 민중들을 착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절 법당에는 “천황폐하성수(聖壽)만세’니 ‘황군무운장구’(皇軍武運長久) 따위의 패목”<sup>23)</sup>이 세워지는 등 불교계가 노골적으로 일제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사하춘』에서 보광사와 보광리 사람들이 일제 공권력과 결탁하여 성동리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장면을 통해서 현실 불교가 이미

21) 김정환, 앞의 책, 1989, 67쪽.

22) 김정환, 위의 책, 1989, 68쪽.

23) 김정환, 위의 책, 1989, 66쪽.

석가의 가르침을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들에게 시선을 거두고 권력의 시녀가 된 종교는 더 이상 민중들의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없는 폭압의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김정한의 이러한 불교의식은 “종교와 민중의 관계가 민족이 직면한 불신사회에 하나의 개혁의지로 나타난 한용운의 종교적 면모에 가까이가 있”<sup>24)</sup>다고 평가 받는다. 현실의 억압 기제와의 대결을 통해서 민중을 지켜내야 할 종교가 그 책무를 저버리고 타락하자 김정한은 소설을 통해서 불교가 다시 본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종교의 역할과 작가의 책무가 만나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2장에서 김정한의 글과 작품을 통해서 그의 불교 인식을 살펴 보았다.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식을 좇아서 작가 김정한이 작품에 그리고 있는 불교와 관련된 장면들과 사건들이 그의 종교관 중 일부에 불과함을 확인했다. 여러 연구자들이 김정한이 가진 불교의식을 한국의 일반 민중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기층종교로서의 인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 소극적인 판단이었다. 김정한의 성장배경과 추산당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정한은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인으로서 부처를 섬기기보다는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의미를 가지는 부처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여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삶을 보듬을 수 있도록 작가 역시 작품을 통해서 민중의 실상을 알리고 고통 받는 민중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종교와 작가가 세계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다.

24) 오양호, 『현실과 산문정신』,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98쪽.

### 3. 요산 김정한의 소설에 구현된 불교사상과 불교적 세계관

3장에서는 김정한의 소설 중 작가가 불교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축생도』(1968), 『수라도』(1969), 『지옥변』(1970), 『사뱃재』(1971)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불교의 세계관은 크게 윤회의 유무에 따라서 이원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윤회세계는 (육도윤회)六道輪廻로 ①지옥(地獄), ②아귀(餓鬼), ③축생(畜生), ④수라(修羅), ⑤인간(人間), ⑥천상(天上)으로 구분되며 존재는 이 여섯 세계를 떠돌며 윤회하다가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면 더 이상 윤회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sup>25)</sup> 육도세계는 중생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쌓은 결과 인과응보에 따라 결정된다. 불교의 세계관은 “고난, 고통을 인정하는 고(苦)의 관념론”<sup>26)</sup>으로 육도세계에서 고통을 업(業)으로써 닦아내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해탈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육도의 세계 중에 전생에 악업만 쌓은 이들은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로 윤회하게 된다.

이처럼 육도윤회의 세계관을 두고 볼 때 김정한의 소설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는 우연히 세상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제목을 지었다기보다는 작가가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제목을 정하고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한이 “민족(민중)의 수난사와 불교의 세계의 상관성을 명시”<sup>27)</sup>한 것은 민중들의 고통이 불교의 윤회사상을 통해서 공덕을 닦으면서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권력자들이 세계의 윤회성을 인지하고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라는 소망이 드러난 것이다.

25) 정인스님, 『불교의 세계관』, 『僧伽』 13, 중앙승가대학교, 1996, 270-271쪽.

26) 박상률 엮음, 『불교문학평론선』, 민족사, 1990, 50쪽.

27) 박상률 엮음, 위의 책, 50-51쪽.

『축생도』는 짐승으로 윤회한 존재들이 인간세계에 함께 있음을 의미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악업을 쌓는 이들에게 축생도가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옥변』은 끔찍한 형벌만이 존재하는 고통의 공간을 묘사하여 민중들의 삶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으며 인간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이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삼악도의 고통을 현실에 그려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수라도』는 아름다운 세계와 배치되는 영원한 폭력과 다툼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오봉선생 집안의 수난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사바재』는 사바세계<sup>28)</sup>, 즉, 인간 세계 고통을 극복해야하는 공간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공간이다. 이처럼 김정환이 발표한 네 작품의 형상화 양상을 종합해 보면 현실 사회는 고통과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고(苦)의 세계이다.

『축생도』(1968)는 김정환이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한 첫 작품이다. 현실 세계는 축생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 즉, 인간 세계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이 현생에 다시 덕을 쌓지 않고 악업으로 나아가면 후생에 다시 고통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간 존재들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정환은 『축생도』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 본연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고 민중들이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 현실”<sup>29)</sup>을 고발하고 있다.

가축병원이란 데는 소위 일반 병원과는 달라서, 까다로운 문간도 없고, 그저 허름한 갈대밭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 “저—, 특별한 부탁이…….” 해 놓곤, 바우가 얼른 말을 못 잇고 어름대니까, 그는

28) 사바(娑婆)는 saha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인(忍)·감인(堪忍)이라 번역한다.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세상을 말한다.

29) 오현석, 『김정환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140-141쪽.

갑갑한 듯이 발 틈으로 바깥 달구지 쪽을 훑듯 내다보며, “돼집니까?” 하였다. (……) 수의사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바우 쪽을 되돌아보았다. “사람은 병원엘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밖에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보시오!” “다 가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데서도…….” 바우의 말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하소연같이 들렸다.<sup>30)</sup>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동물에게, 동물이 사람에게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불교적 관점에서는 선업을 닦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하지만 『축생도』에 그려지는 인간 세계는 전혀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 병원 의사나 간호사는 분통이를 실어 온 바우의 몰골을 보고 인간 취급을 안했지만 오히려 인간 세상에서 축생도로 가야할 인물이 의사와 간호사이다. 바우는 이런 축생들과 다름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도를 실천한 수의사와 그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바우 내외는 인간세계에서 공덕을 닦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처절하게 분통이의 아픈 몸을 수의사에게 맡기도록 설정했던 것이다. 침대가 아닌 “짐승을 다루던 널빤지에, 동물에게 쓰던 칼”(『축생도』, 3권, 116쪽)로 인간의 몸을 손대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그런 불법의 상황을 만든 원인이 현실에 있다. 작가가 끊임없이 이 작품에서 ‘동물’이라는 단어를 환기시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0)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3, 작가마을, 2008, 115-116쪽. 다음 인용부터는 제목, 권, 쪽수만 인용문 말미에 표시하겠다.

문학—즉 작품은 곧 작가(인간)의 발성(發聲)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간이 자기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시정, 제거하기 위해 발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성을 대변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가 아닐까요? (……) 『축생도』란 단편에는 바로 그러한 내신념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sup>31)</sup> (……)

김정환은 작품은 작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외부로 외치는 ‘발성’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측면에서 『축생도』를 본다면 단순히 민중의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병원 의사나 제도에 고하는 독설이다. 인간세계에서 주객전도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실천을 위해서 작가는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책무라고 김정환은 생각했다. 『축생도』의 창작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김정환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외 다른 작품들의 경우에도 작가의 책무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사는 경찰에 불려 갔다.—왜 수의사인 주제에 사람 수술을 했는데, 말하자면 국민의료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다행히 취조를 맡은 사람이 학사 순경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긴급을 요하는 상태였다 해서 <위법성의 저각(阻却)>이란 조목에 해당시켜 주어서 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건 그거지만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그에 간판을 떼어 갔다.(『축생도』, 3권, 118쪽.)

『축생도』의 수의사와 『제3병동』의 의사 김종우는 모두 현실 제도의 잣대로 본다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인물이다. 동물만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인간을 치료하고 병원의 물건을 몰래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절차와 제도만으로 판단하면 이들은 사회의 약속을 어긴 인물이다. 하지만 제도의 속박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인간의 목숨과 그 존엄성을 외면

31) 김정환, 앞의 책, 1985, 257쪽.

할 수 없었던 두 의사의 인간애”<sup>32)</sup>를 작가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도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간을 제도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시(普施)에는 정해진 법과 상(像)이 없다. 오로지 인간이 중심에 오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작가의 책무는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해보면 간명하게 드러난다. 『축생도』는 축생들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인간회복을 갈망하는 작가의 외침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무주상보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라도』는 가야부인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의 실천, 보살행(菩薩行)을 실현한 작품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육화된 흔적과 같은 불교적 정서”<sup>33)</sup>가 존재한다. 『수라도』에도 가야부인의 할머니나 오봉선생의 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처럼 기복신앙의 특성이 드러나지만 가야부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수라도』는 단순히 우리 한국의 전통 기복신앙으로서 아녀자들에게 내재해 있는 불교의 표출이 아니라 불심과 부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소설이다. 물론 오봉선생을 비롯한 유교적 관점을 가진 인물들이 불교의 전면적 수용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도 가진다. 하지만 가야부인이 유가와 불가가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고 불사를 하는 것에 대해 오봉선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불교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희 집도 유교 가문이기도 했지만 친정할머니는 지가 애릴 때부터 불법을 소중히 여겼사옵니다—” 이렇게 꺼낸 가야부인의 이야기는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그러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 불법을 대견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공자님의 인

32) 김정환, 앞의 책, 1985, 258쪽.

33) 김상수, 『최인훈 『광장』의 불교 정서적 상징과 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13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214쪽.

(仁)이나 석가모니의 자비심이 근본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고 믿어 왔으며 (……)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업보>란 걸 억지로라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요즘 세상인들 살아가겠느냐 (『수라도』, 3권, 171-172쪽.)

불교에서 공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생의 선업을 통해서 공덕을 닦아야만 후세에 육도의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즉, 현생, 후생의 윤회는 전생, 현생의 삶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불교적 세계관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고전소설에서 인과 구조에 따른 작품 구성은 이런 불교적 세계관에 기인한다.<sup>34)</sup> 현대소설에서 인과구조는 입체적 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양되기도 하지만 『수라도』에서는 그 인과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불교적 세계관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모도 참봉과 이와모도 구장의 죽음, 무당 천금새의 굿 실패 등이 모두 현생의 악업으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이다. 작가는 복잡한 수식 구조를 빼고 직설적으로 악업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이 원리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이거나 과거의 고리타분한 진리가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는 선업으로 공덕을 닦는 인물로 가야부인을 제시했다.

흐느끼는 아낙네들의 손을 잡아 주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었다. 먼데서 온 분은 기어이 재워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가야부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공덕이었다. 선심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수라도』, 3권, 305쪽.)

부처는 공덕을 쌓음에 있어서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무상보시(無相普施)<sup>35)</sup>를 행하라는 의미이다. 가야부인은 미륵당을 만들고 공덕을 닦으면서 민중

34)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화회, 2005, 180-181쪽.

35) 원순 율김, 『육조 스님 금강경』, 범공양, 2014, 102쪽.

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했다. 그녀가 오봉선생으로부터 불교를 인정받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난을 벗어버리고 모든 인간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부처님의 공간을 내어준 것이다.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도 선심(善心)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가야부인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는 공덕은 “수많은 보물로써 공덕을 쌓으려는 것은 공덕이 없다.”<sup>36)</sup>고 했다. 신라 향가 『풍요』에도 이와 같이 공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민중들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불사에 필요한 보시를 못해서 복을 짓지 못하지만 진흙을 나르는 일을 공덕 닦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sup>37)</sup>하고는 불사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가야부인 또한 공덕 닦는 일에 재물이 아닌 마음을 써야함을 알고 부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옥변』은 현실 공간을 지옥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자본가들에 의해서 저수지 일대가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자연공간이 유희와 향락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수로시설이 미비 되어 그 아래 동네는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차돌이는 이런 현실을 지옥으로 여겼다.

웅당 사람도 더러 떠내려 가리라. 차돌이는 언젠가 절에서 그림으로 구경한 지옥을 연상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지옥이었다. (『지옥변』, 3권, 356쪽.)

‘어처구니없는 지옥’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차돌이 지옥으로 인식한 현실은 수마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민중들만이 피해자가 되었다. 자본과

36) 원순 옮김, 위의 책, 217쪽. 『금강경』 19分 법계통화분(法界通化分)에서 부처는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를 다 채운다 해도 그 복덕은 실체가 없고 많지 않다고 했다.

37) 김병권, 『<풍요>의 불교적 담론 읽기』,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중인문학회, 2013, 80쪽.

권력을 가진 자들의 집은 저수지 위쪽에 있어서 수마의 피해를 피해갔다. 결국 가진 자들의 횡포로 민중들이 고통 받는 현실이 반복된 것이다.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현실을 민중들은 부정하고 싶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세상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sup>38)</sup>고 부처는 설법했다. 부처의 가르침, 즉, 불법(佛法)에서는 권력자들의 법이 따로 있거나 민중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불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지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언이폐지하면 모두가 마음들을 비우지 못한 탓,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오욕(五慾)의 탓이 아닐까 싶다. (……) 약육강식하는 짐승의 사회가 계속될 뿐이다.<sup>39)</sup>

결국 요산은 『지옥변(地獄變)』이라는 제목처럼 이 작품을 통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재 우리 인간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오욕을 비우지 못한 이들 때문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계에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민중들에 대한 연민과 권력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이 ‘약육강식하는 짐승의 사회’로 발언되었다. 인간이 살아가야할 세계에 짐승과 악귀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인간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사뱃재』를 살펴보겠다. 사뱃재는 부산 동래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실제 지명이다. 이 지역의 큰 절인 범어사는 사뱃재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타지에서 범어사를 오기 위해서는 사뱃재를 통해서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뱃재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속세와 불가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한다. 범어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뱃재 언덕에 오르면 동래가 바로 앞에 있고 곧 범

38) 고려본 금강경 제23분,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復次 須菩提야 是法이 平等하야 無有高下하니.

39) 김정환, 앞의 책, 1989, 194쪽.

어사 입구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불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 잡은 사뱃재는 공간적 의미와 함께 사바세계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너머 큰절이 있다(사람들은 그저 큰절이라고 불렀다). 아마 거기에 절이 서고부터 이 재를 사뱃재(娑婆嶺)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옛날 부누가 근친 왔다 자기를 데리고 돌아가면서 하던 말을 그는 문득 생각해 내었다.(『사뱃재』, 4권, 164쪽.)

사뱃재를 넘어가는 송노인에게 이곳 고개는 넘어가기 힘이 부치는 공간이지만 누부를 생각하면서 팔순의 노인이 순수한 가족애를 품고 기꺼이 길을 나선 공간이다. 사뱃재로 모여드는 인간들은 모두 인간세계에서, 불가의 세계에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다닌다. 수많은 인간 군산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일제 강점기 하에서 민족의 수탈과 억압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버스 안에서 일본 순사가 송노인의 뱀술을 빼앗고 농을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었고 이후 처참하게 버스사고를 당한 순경과 학도병들을 통해서 “나라 되찾기”<sup>40)</sup>의 의미도 담겨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뱃재라는 고개가 인간세계를 축소해놓은 표상이라는 점이다. 송노인과 순사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동시에 버스는 사뱃재를 힘들게 올라간다. 송노인은 이런 갈등 상황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갔다.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갈등을 벗어난 것이다.

생이란 무심히 일어나는 구름과 같고, 죽음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구름과 같으니라(生地一片浮雲起 死地一片浮雲滅). 이러한 불가의 말이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요즘의 심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나는 것과 죽음을 뜻할 뿐 사람의 삶을 지적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up>41)</sup>

40) 김태기, 『소설 사뱃재 연구』, 『모국어교육』 13권, 배달말교육학회, 1995, 123쪽.

아마도 송노인은 혼자 고개를 다시 오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대로 생은 허무한 무상(無相)이다. 그러므로 집착도 필요 없고 욕망도 필요 없다. 삶과 죽음이 유한한 사바세계에서 인간이 간직해야 할 진리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다. 『사뱃재』는 송노인을 통해서 여든 노인이 누부를 생각하는 순수성, 일제의 탄압과 희생당하는 젊은이들과 버스사고를 통해서 인과응보의 깨달음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공(空)을 이해하는 깨달음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요산 김정한의 소설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를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불교적 사상과 그 실현 양상을 분석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요산은 유교적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제목을 바탕으로 축생, 수라, 지옥, 사바 세계를 작품 속에서 구현해 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서 김정한이 단순히 기복신앙으로서의 소극적 불교가 아니라 불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에 구현해 냈음을 확인했다. 『수라도』에서 가야부인과 『축생도』의 수의사는 모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하는 인물이었다. 『지옥변』은 존재의 높고 낮음은 없다는 불법(佛法)의 가르침대로 무유고하(無有高下)를 실현해야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사뱃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공(空)을 깨닫고 행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한의 소설에서 불교적 세계관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닌 불교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

41) 김정한, 앞의 책, 1989, 54쪽.

#### 4. 나오며

그동안 요산에 대한 연구는 유교적 관점에서 선비정신으로 굳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의 대쪽 같은 성격과 ‘낙동강 파숫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직한 성격과 작품 경향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발표한 일련의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요산의 문학이 불교적 관점에서 읽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축생도」, 「수라도」, 「지옥변」, 「사뱃재」로 이어지는 불교적 세계관을 담긴 제목의 소설들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하춘」과 「추산당과 곁사람들」과 같이 초기소설 중 불교를 비판하는 소설 역시 다시 읽기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동시에 나는 억울하게 죽은 어떤 대학생의 추도식에 갔을 때, 남정(男丁)들보다 딸이 차게 더 많이 모인 어머니,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뭇 맺히던 관경을 기억에 떠올리기도 했다. 맹자(孟子)가 말한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남의 불행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곧 자비심이 아니겠는가 싶었다.<sup>42)</sup>

요산 김정환은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따라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사회로 불러내는데 온 힘을 쏟은 작가이다. 작가는 누군가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인 민중들의 고통 받는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시선과 함께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낸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겨누었다. 요산이 평생 마음에 지닌 작가의 책무는 이처럼 민중을 향한 ‘측은지심’과 ‘자비’이다. 그것이 결국은 민중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난다.

김정환은 불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적 사상으로 여겼다. 일부 작품에서 그려진 불교에 대한 부정적 묘

42) 김정환, 앞의 책, 1989, 26쪽.

사는 당대 불교의 타락을 지적한 것이지 불교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작가의 경향은 작가의 삶과 그가 남긴 글과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시절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명정학교에서 수학한 경험과 부처가 지향하는 사상이 모두 민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한은 불교사상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특히,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육도윤회에 따른 세계관은 민중들이 공덕을 닦으면서 윤회를 통해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반면에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에게는 악업으로 인해 윤회의 고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작품들을 통해서 김정한은 부처의 가르침을 내재적으로 담아 전달하고 있다. 『축생도』와 『수라도』를 통해서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시 그 자체를 행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사회에서 탐욕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지옥변』을 통해서 인간은 무유고하(無有高下)의 존재이며 법과 제도 역시 분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뫼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공(空)을 깨닫고 행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한의 소설은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민중들이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한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제도도 본래의 목적은 민중을 향해 있음을 적시하며 단순히 종교로서 가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에서 민중들의 삶을 조금 더 살만한 공간으로 회복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김정한은 부처의 가르침대로 머물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 것을 작품을 통해서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진호 편, 『김정환』, 새미, 2002.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167-187쪽.
- \_\_\_\_\_, 「〈풍요〉의 불교적 담론 읽기」,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중인문학회, 2013, 77-82쪽.
- 김상수, 「최인훈 『광장』의 불교 정서적 상징과 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13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214쪽.
- \_\_\_\_\_, 「최인훈 소설의 불교적 성격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4.
- 김윤식, 「추산당과 가야부인- 김정환론」,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5-46쪽.
- 김주현, 「요산 김정환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47-74쪽.
- 김정환,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 \_\_\_\_\_, 『김정환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3.
- \_\_\_\_\_,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 \_\_\_\_\_,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 \_\_\_\_\_, 『황량한 들판에 서서』, 황토, 1989.
- 김태기, 「소설 사뱃재 연구」, 『모국어교육』 13권, 배달말교육학회, 1995, 99-130쪽.
- 김택호, 「김정환 소설의 저항의식과 유교적 세계관」,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249-264쪽.
- 무 비, 『무비스님 新 금강경강의』, 불광출판사, 2016.
- 박상률 엮음, 『불교문학평론선』, 민족사, 1990.
- 송명희, 「김정환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제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261-289쪽.

- 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3.
- \_\_\_\_\_,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 원순 옮김, 『육조 스님 금강경』, 범공양, 2014.
- 정인스님, 『불교의 세계관』, 『僧伽』 13, 중앙승가대학교, 1996, 270-282쪽.
-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11-32쪽
-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1-5, 작가마을, 2008.
- 최미진, 『한국근대소설의 이면』, 소명출판, 2010.

<Abstract>

## A Study on Buddhist Thoughts and Buddhist World view Yosan Kim Jeong-han's Novels

Oh, Hyoun-Suk\*

Resistance consciousness and folk consciousness revealed in the works of Yosan are basical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artist himself. The Kim Jeong-han novels tend to interpret Confucian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folk orientalism and resistance. However, this researcher has a question here. Kim Jeong-han studied at Myeongjung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temple for two years after leaving the Seodang. During this period, Kim Jeong-han learned about Buddhism.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interpreting Kim Jeong-han's novel from a Buddhist point of view. Kim Jeong-han has a keen knowledge of Buddhism. He is not a religious person but affirms a ministry that has meaning as a spiritual landholding of the people. So, there are many contents related to Buddhism in his work. Novels such as "Congratulations", 「chugsaengdo」, 「Sulado」, 「jiogbyeon」, 「sabasjae」 all be interpreted from a Buddhist perspective. In these novel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artist is respect for humanity and humanity. Kim Jung-han embraced Buddhist thought in novels to protect the people. I also felt that I needed to practice these Buddhist ideas.

---

\*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Yosan, Kim Jeong-han, Novel, Buddhism, 「chugsaengdo」,  
「Sulado」, 「jiogbyeon」, 「sabasjae」

- 논문접수 : 2018년 7월 18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5일
- 게재 확정 : 2018년 8월 17일